

유럽항공안전청(EASA), EU AI법 연동 “항공 AI 신뢰성 상세규격(DS.AI)” 제정 의견수렴 착수

해당국가	EU	기관(기업)	유럽항공안전청(EASA)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항공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- 유럽항공안전청(EASA)은 항공 분야에서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항공 안전 규제 체계를 EU AI Act에 반영하기 위해 AI 신뢰성 상세규격(DS.AI)과 연계
 - AI 적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인증·승인 체계가 머신러닝의 확률적 특성, 인간-AI 팀 구성 (공동 상황인식, 책임 배분), 윤리적 이슈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
 - 적용 영향 대상은 감독기관부터 운전자, 정비조직, 관제사, 공항 운영, 교육기관, 지상조업 등 항공 생태계 전반으로 명시
 - EU AI Act 요구를 항공 전 영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세규격 구조 제안
 - EU AI Act 제8~15조 요구사항을 상세규격 조항에 매핑하여 제품 인증, 항공교통관리, 항행 서비스 등 여러 항공 영역에 가로형(공통) 규격으로 적용 가능한 틀을 제시
 - 목표는 항공 AI의 현재와 미래의 활용을 포괄하되 승객 및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하는 것으로 명시
 - 기술사양 범주로 범위(scope)/AI 기법, ConOps*, AI 기반 시스템 분류, 운영 도메인 리스크 평가, 윤리 기반 평가, 지속 리스크 평가, 인간 중심 설계를 제시
 - * 사람과 AI의 역할·업무 배분, 상호작용 방식, 사용 조건·제한까지 포함해 문서화하도록 하고, ConOps 정의 시 사용자 범주 참여를 요구
 - 운영 도메인과 운영 설계 도메인을 구분해 시스템 수준뿐만 아니라 AI 구성요소 수준에서 운용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, 이는 학습 데이터 선정·운영 중 데이터 모니터링의 전제
 - 상시 리스크 평가는 운용 중 데이터 기록·무결성 확보, 지표·임계치·평가주기 설정, 원인 분석과 시정조치까지 포함해 ‘운영 단계에서 안전 여건이 유지되는지’를 계속 확인하는 체계를 요구
 - 초기에는 AI 적용을 보수적으로 하며, 레벨 1~2 중심, 온라인 학습 등은 범위에서 제외
 - 항공 안전 승인 체계가 전제하는 “승인된 시스템의 버전·성능이 운영 중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”는 원칙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범위에서 제외
 - 또한 상징형·하이브리드 등 AI를 제한하고, 생성형 AI 활용 시 개발 단계의 인간 감독을 전제하는 취지의 범위 제외 논리를 함께 제시

※ 출처 : EASA(2025.11),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2025-07 (A) / (B): Artificial intelligence trustworthiness (DS.AI, AMC & GM)